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요5:1-9

저명한 설교가인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 없이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불치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만 찾으시고 그만 고쳐주시고 모습을 감추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가성에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금지구역인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를 지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란 구약을 지칭합니다. 오래된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모습은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구약 종교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율법은 있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해서는 인생의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답이 나옵니다. “(요 5:8-9)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2. 인생의 문제해결의 원리

1)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병을 고침 받아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앓게 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환경에 대응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의 제일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기저항이 없다면 비행기가 더 빨리 더 높이 날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공상태에서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공기의 저항, 그것은 분명히 장애물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는 바로 그 요소가 동시에 비행 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축복도, 기적도, 보람도 없습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요 가능성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선지병(Destination Disease)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텐데..’, ‘내가 그 지위가 되면 행복할텐데..’ 라며 행복의 조건을 어떤 직위나 자리로 착각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특정한 의존증(Someone Sickness)입니다.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텐데..’, ‘그 사람하고 일하면 행복할텐데..’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심성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한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남에게서 오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2) 믿음이 회복되면 문제도 해결된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믿음부터 회복시키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인생의 불황 가운데 임함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이후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38 년된 병자의 인생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나 제도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강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인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어주었지만 예수님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도바울은 롬 1:14 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희망을 얻었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광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얻었다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얻었다는 간증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의식을 집행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슬픔과 절망에서 놀라운 희망을 얻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희망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떠한 윤리와 도덕의 규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망적인 존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두드러지게 변화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안에서 '기적'을 나누어 주십시오.
4. 여러분들에게 “네가 낫고자(회복되고자,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5. (공기저항이 비행의 속도를 반감시키기도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와 저항으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축복의 필수적이 조건이었음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수 한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 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워낙 성격이 포악한데다가 특하면 말썽을 일으켜서 간수들에게 가혹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에 넣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 보았지만 전혀 변화 되지 않았습니다. 긴 복역기간이 끝나고 그가 출소를 했는데 마침 교회에 속한 작은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최악으로 완악해지고 채찍을 맞아도 울지 않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새사람이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180 도 변화 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 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하여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 백번의 가혹채찍과 40 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불과 1 분만에 새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분명한 만남을 통해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